

# 타오란[陶然] 작품에 나타난 홍콩의 장소성\*

소설 『양팔 저울』을 중심으로

송주란

heeya5280@hanmail.net | 부산대학교

## 국문 초록

홍콩은 영국의 식민화 과정을 거쳐 기존에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했던 무의미한 공간에서 유의미한 장소로 바뀐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식민지 이전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지 못했던 공간으로서의 홍콩은 영국인을 비롯한 서양인 이주민과 중국인 이주민의 유입으로 점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성격의 정치·경제·문화·사회를 특징으로 하는 홍콩만의 독자성을 보유한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홍콩의 가장 큰 특징은 혼종과 다중 정체성을 들 수 있고, 홍콩 문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홍콩 작가 타오란은 그의 작품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체득한 홍콩의 특정 장소들에 대한 의미를 과거를 통한 회상과 기억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오란은 홍콩 문학계에서 남래(南來)작가, 즉 이주 작가로 분류된다. 이는 타오란의 다중적인 신분·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계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01).

으로서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화교 출신인 타오란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조국인 중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 후 피치 못할 이유로 홍콩에 거주하게 된다. 그 당시 그는 물리적 외압에 의해 홍콩으로 쫓겨 온 신세였고, 홍콩은 그에게 있어 단지 잠시 머물다 가야 할 의미 없는 공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의미 없는 공간으로서의 홍콩의 장소들에 대해 삶과 연결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공간 홍콩은 그에게 의미 있는 '장소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의 작품에는 이런 장소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타오란에게 홍콩은 자신의 삶이 영위되는 장소이자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 안정된 장소로서의 홍콩너머에 있는 광대한 공간 즉, 인도네시아와 베이징은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오란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고, 타오란이 체험한 홍콩의 구체적 장소들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홍콩, 타오란, 홍콩 문학, 공간, 장소

## 1. 들어가며—홍콩, 공간, 장소

중국의 남동해안에 위치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이전에는 척박한 돌섬의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던 주변지역이자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그 위치는 해안선 깊숙이 만입되어 있어 이상적인 선박 계류장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홍콩의 가치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역에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그 수역에는 육지로 거의 막혀있는 커다란 항구가 있어 해운업을 위한 이상적인 정박지가 있었다. 홍콩은 이 항구의 산물이었고 해운업은 이후 홍콩

이 발전하는 근원이 되었다. 1841년부터 서유럽 및 중국 상인들 사이의 무역으로 인해 영국 상인들은 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홍콩으로 점차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무역을 위한 서양 상인들과 중국 상인들 간의 불평등 무역 조건으로 기인해 여러 차례 분쟁이 일었고 그 결과 영국 상인은 본국인 영국 정부에 도움을 청하게 된다. 결국 홍콩은 아편전쟁으로 인한 영국과 중국 간의 불평등 조약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sup>1)</sup> 그 후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으로 국제적인 대도시로 급성장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업도시이자 자본주의 도시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나 1898년부터 99년간 영국에 조차된 신계(新界)지역의 기한 만료일로 인해 영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중국에 반환해야만 했다. 주권반환이라는 이 정치적 사안은 15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홍콩이라는 장소에서 삶의 공동체를 구성해온 소위 홍콩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이었다. 홍콩에 대한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은 홍콩인을 배제한 채 중국과 영국의 두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와 중국의 자오쯔양(趙紫陽)이 조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중·영공동성명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그 후 홍콩사회는 비교적 안정된 사회 분위기에서 점차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사회 분위기로 변해갔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오랜 시간 길들여진 홍콩인은 이미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살고 있던 사회주의 체제하의 중국인으로 살 수 없었고, 그렇다고 식민 지배국인 영국인의 입장에서 살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홍콩인은 자신들의 조국인 중국적 전통과 문화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도 없었고 자본주의 체제에 길들여진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오히려 빠져나올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들은 영국 홍콩인이면서 동시에 중국 홍콩인으로서의 다중적인 정체성을

1) G. B. 엔다콧, 은은기 옮김, 『홍콩의 역사』 (한국학술정보, 2006), 14.

가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또한 홍콩인이 이중 혹은 다중의 혼종된 정체성을 지닌 경계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홍콩인은 이제 중국의 정치·사회 체제도 영국의 체제도 아닌 제3의 공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인간 집단인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인간 집단이란 홍콩인을 중국인으로도 영국인으로도 상상하지 않고 홍콩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자신들만의 역사와 기억을 가진 또 다른 하나의 인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국의 디아스포라를 자신의 국가 또는 조국과 연결해 보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자체를 하나의 또 다른 인간 집단으로 보고 연구하고 있는 김혜준의 시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새롭게 형성된 홍콩 공동체는 그 자체로 독자성을 가지며 자신만의 장소 정체성을 가진다.

인간 삶의 가장 원초적인 물리적 조건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볼 때, 홍콩은 영국이 중국에서 빌려온 시간과 빌려온 공간에서 그만의 독자적인 장소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에드워드 랠프는(Edward Relph)는 장소와 공동체에 관해서 사람은 곧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이며, 장소는 곧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는 쉽게 분리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쉽게 분리될 수 없어 장소는 공적(public)이라고 보았다. 즉 장소는 상징과 의미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함께 하고 관련을 맺음으로써 창조되고 알려지기 때문으로 본 것이다. 즉 우리가 장소로 인식하는 생활세계의 특성들은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장소에는 우리의 의도, 태도, 목적과 경험이 모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초점이 되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장소는 주위 공간의 일부이면서도 그 공간과는 별개이다. 즉, 장소의 기본적인 의미인 장소의 본질은 위치에서 오는 것도, 장소가 수행하는 사소한 기능들에서 오는 것도,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오는 것도, 피상적이고 세속적인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원한 중심으로 정의하는 무의식적인 의도성에 장소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

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게 된다. 랠프는 공간이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 장소로 되어가는 과정을 '장소화'로 보았고, 또 장소화가 진행되어 그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제공하여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토대를 바로 장소 정체성(장소성)으로 인지하였다.<sup>2)</sup> 필자는 이들 개념을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홍콩은 영국이 중국에서 빌려온 시간과 공간에서 장소화를 거쳐 그만의 장소성을 가지게 된 하나의 도시로 볼 수 있다. 또 랠프는 개인과 개인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장소 간에는 깊은 심리학적 유대관계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장소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그 장소와 깊이 연루되어 있어 장소에 대한 깊은 애착은 다른 개인과의 밀접한 관계만큼이나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식민지 이전의 홍콩이 중국에 속한 영토적 개념으로서의 공간에 불과했다면 영국의 식민화 정책 이후의 홍콩은 개개인에 의해 무의미한 공간이 유의미한 장소화를 통해 홍콩 특유의 장소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식민지 근대화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지 못했던 공간으로서의 홍콩은 영국인을 비롯한 서양인 이주민과 중국인 이주민의 유입으로 점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성격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홍콩 특유의 장소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타오란[陶然]은 홍콩이 가진 이런 장소성과 유사한 혼종된 정체성을 가진 경계인이다. 타오란의 작품 속에는 작가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홍콩의 특정 장소에 대한 개인적 기억과 역사적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타오란의 작품에 표현된 홍콩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가 홍콩에서 경

---

2)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김현주·김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105~108.

험한 특정 장소들이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또 부분적이지만 홍콩의 장소성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경계인 타오란과 작품 속 홍콩의 장소

1997년 홍콩에 대한 주권을 중국에 반환한다는 중·영 공동성명이 발표된 1984년부터 홍콩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그리고 이민자 사회 홍콩에서 이민자 신분이 아닌, 홍콩 본토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성년이 되는 시기인 1970년대부터 홍콩 문단에서는 점차 홍콩의 장소성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세대가 한 무리의 작가군을 이루며 등단하게 된다. 홍콩 본토 출신의 작가들이 점차 등단하면서 홍콩 문학계에서도 홍콩의 장래나 홍콩의 정체성 또는 홍콩과 중국 간 차이 등에 관심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이 증가했고, 홍콩 반환을 직접적인 소재로 다룬 단편소설과 중·장편소설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른바 ‘홍콩의 장소성’의 추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도시의 상실, 또는 도시로부터의 소외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거기다 이민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제시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역사 회고, 신이주자, 외국 이민, 도시로부터의 소외, 도시의 상실, 홍콩의 사회현상 등 중국과 구별되는 홍콩만의 특징 및 홍콩반환 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회 현상들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홍콩의 장소성 내지 그 정체성을 찾고자 하거나 그것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현상이 홍콩 문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sup>3)</sup>

이런 홍콩의 문학 흐름 속에 타오란도 예외는 아니었다. 타오란(1943~)은 홍콩 본토 출신의 작가는 아니지만 본토 출신 작가 못지않게 홍콩에 대

3) 예스 지음, 김혜준·송주란 옮김,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 (지만지, 2012), 278.

한 남다른 애착과 경계인으로서의 시각으로 홍콩의 장소성을 그의 작품 속에 잘 드러내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서 태어난 화교 출신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홍콩에 정착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게 된 홍콩의 남래작가(南來作家)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이런 신분적·문화적 정체성의 혼종은 그가 그려내고 있는 홍콩의 장소성과도 상당부분 닮아있다. 우선 그의 신분적·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세 개의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경계인으로서의 타오란과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서 출생한 인도네시아 화교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화인(華人)의 숫자는 약 3천 8백만 명에 달하고, 이 중 77%는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그 가운데 757만 명으로 가장 많은 화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타오란이 태어난 인도네시아이다. 그다음으로는 각각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등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화인은 인도네시아 총인구의 3%를 차지하며 토착 정치 엘리트에게 각종 권리를 크게 제약 받으면서도 주요 경제 부문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였다.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의해 독특한 지위를 부여 받은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식민 지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토착민도 아닌 제3의 집단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이들 인도네시아 화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토착민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가 인도네시아에서 화인과 토착민 사이의 주된 갈등의 요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요한 인종 및 종족간의 갈등은 네덜란드 식민통치자와 인도네시아 화인 사이의 갈등이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정치·사회적 원인으로 화인들은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식민정부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1949년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탄생한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 역시 네덜란드 식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화인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탄압을 가해왔다. 그 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196

6~98) 역시 인도네시아 화인들에게 정치·문화적으로 철저한 탄압을 가했고, 강력한 동화정책으로 인도네시아 화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강요하였다. 특히 1959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농촌 지역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당시 인도네시아 화인들도 외국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도네시아 화인들은 불이익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60년에는 인도네시아를 떠나 중국으로 재이주한 인도네시아 화인의 수가 무려 10만 명에 달했다고 알려진다.<sup>4)</sup> 이런 인도네시아 화인 사회에서 타오란은 유년시절을 보냈고 16살이 되던 1959년, 부모님의 조국 중국 베이징으로 유학을 떠난다. 네덜란드 식민 정부 때부터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까지 줄곧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인도네시아 화인 출신 타오란에게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자신의 조국 중국은 언젠가 자신이 돌아가 정착해야 할 정신적 이상향이었는데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삶의 공간을 중국으로 옮긴 당시의 중국 사회 역시 그에게 그리 녹녹치 만은 않았다. 당시 중국 사회는 이미 정치·사회적으로 대약진 운동, 인민공사, 반우파 투쟁 가운데 있었고 사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원성이 도처에 가득하던 때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아사자들도 널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타오란의 대학 생활은 줄곧 계급투쟁의 과정에 놓여 있게 되었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처해있는 실정이었다.<sup>5)</sup>

공간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구현되는 물질적 존재성의 근원적 터이며 우리가 점유하는 공간은 나와 다른 개체, 세계를 연결하는 장소이다. 즉, 삶의 터로서의 장소는 우리에게 자연적 소여로서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공동체적 삶이 펼쳐지는 복합적이고 구조화된 공간이기도

4) 박경태, 「‘화교(華僑)’에서 ‘화인(華人)’으로 - 식민시기와 냉전시기 인도네시아의 화인 정책」, 『다문화사회 연구』(숙명여자대학교, 2009), 33~61.

5) 胡茄, 「狩獵于都市風景: 陶然筆下的香港」, 『香港文壇』總第九期(香港文學報社出版社, 2002), 13.



하다.<sup>6)</sup> 작가 타오란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의미가 발현되는 공간인 인도네시아나 중국 베이징은 그를 타자의 입장에 놓이게 했고 또 중심이 아닌 주변인으로 내몰았으며 결국 그를 물리적 경계인으로 특징지었다. 그리고 공간은 그 용도에 따라 구획되고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 구획이란 경계를 만드는 행위로 공간과 함께 경계도 생산된다. 목적의식적으로 구획된 공간에서 그 목적에 정합하다고 간주되는 중심과 그에 동일시하는 주체들을 제외하고 자투리, 나머지, 잉여, 주변, 혹은 쓰레기 등과 더불어 재현되는 구역이 경계이다. 다른 공간과의 관계를 두고 볼 때, 경계는 갈등·충돌·교류·교통 따위가 일어나는 사이 혹은 틈새 공간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변은 중심과 대비하여 낮은 위상과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변성에서 적극적인 가치를 찾기는 그리 쉽지 않다.<sup>8)</sup> 그런데 타오란은 주변적 위치에 놓인 장소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았다. 그리고 그의 조국 중국에서도, 홍콩에서도 그는 주변인이자 경계인이었다. 그는 그가 나고 교육받고 생활했던 세 지역에서 한번도 중심에 편입된 적이 없었다. 이러한 그의 문화적·신분적 정체성은 그의 초기 작품 속에서 공간 홍콩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가치나 태도가 직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묘사되었다. 그의 산문집 『“1997”의 밤(“一九九七”之夜)』(1999)<sup>9)</sup>의 작품 배경은 인도네시아, 베이징, 홍콩 세 지역이다. 작품의 대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과 회상에 대한 파편들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산문집은 작가가 홍콩에서 홍콩에 대한 장소화를 나름대로 형성시켜 나가던 시기에 쓴 작품들로 자신의 삶의 고단함과 짝퍽함을 과거에 대한 회상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어린 시절 인도네시아에서의 추억, 베이

6) 류지석, 『로컬리티와 인문학』, 『대동철학』 53 (대동철학회, 2010), 351.

7) 하용삼·배운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G. 아감벤의 국민·인민·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62 (대동철학회, 2013), 86.

8) 문성원, 『주변의 의미와 잠재성』, 『시대와 철학』 18-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43.

9) 陶然, 『“一九九七”之夜』(浙江文艺出版社, 1999).

징에서의 학창시절, 부모님의 죽음과 지인들의 죽음을 통한 숙명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도시 홍콩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이 여러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상보다 더 나약한 건 없다.

하지만 정말로 상상이라는 게 없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수없이 많은 얼음같이 냉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을 때, 상상만이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 마치 수정 구슬이 돌아갈 때 나는 부드러운 선율처럼.(102)<sup>10)</sup>

(…중략…)

만약에 그 시절을 멈추게 해 우리가 다시 칠없던 그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면 운명을 다시 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선 당신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고, 나 역시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103)<sup>11)</sup>

타오란은 인용문에서 서술되고 있듯이 운명을 다시 정할 수 있다면 자신의 운명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숙명론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듯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밤[夜]에 대한 이미지는 타오란의 여러 작품에서 종종 등장한다. 혹은 작품의 제목으로 혹은 작품의 내용으로 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수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는 작가가 물리적·의식적 경계인으로서 살아가는 홍콩의 공간적 의미가 위에서 언급

10) “再也沒有什麼比想像更脆弱不堪的東西了。可是，假如絕對沒有想像，人活着又有什麼樂趣？特別當面對着太多的冰冷現實，夢想可以溫情地撫慰受傷的心，比如水晶球轉出的揉情旋律。”

11) “假如可以請求那個時刻停住，讓我們再回到那仍帶學生慙氣的當年，命運是否可以重新安排過？你無法回答，我也無法回答這個問題。不是不想，而是無能為力。”

한 것처럼 주변적인 틈새 공간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기초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의 처녀작 『겨울밤 冬夜』 뿐만 아니라 소설 『크리스마스 이브 平安夜』, 그리고 산문집 『“1997”의 밤(“一九九七”之夜)』에 수록된 『어젯밤의 산들바람 作夜輕風』, 『황혼은 밤바람 속으로 들어가고 黃昏融入夜風中』, 『밤은 기울고 夜傾斜』, 『수정야 水晶夜』, 『격렬한 적도의 밤 刀光劍影赤道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문에서 작가는 홍콩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개인의 정서를 밤을 통한 은유와 상징적인 수법을 기반으로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1973년 타오란은 문화대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중국을 잠시 떠나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당시 그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중국 정부의 해외 이민자에 대한 귀향 금지령 때문이었다. 타오란은 자신의 조국이라고 상상했던 중국 정부로부터 자신의 귀향이 거부되자 어쩔 수 없이 경유지였던 홍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갈 곳 없던 자신을 수용해준 홍콩을 자신의 삶의 터이자 장소로서 인정하고 그곳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조금씩 삶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런 타오란의 작품 경향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기 작품은 창작에 있어서 리얼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회의식이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 많다. 자본주의 사회 홍콩의 부정과 병폐, 그리고 배금주의 사상에 젖은 홍콩인들의 사고방식과 의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작품 속에 다수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후기로 들어서면서 작품 경향이 다소 바뀌게 된다. 이제 작가의 시선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고, 방법론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리얼리즘적 수법에서 내심을 통한 독백이 많이 서술되고 시간과 공간이 도착되는 모더니즘적인 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타오란의 이러한 작품 경향의 변화는 신분적·문화적 정체성의 물리적 경계에서 점차 의식적 경계인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된 산문의 내용은 홍콩사

회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작가의 내심이 과거에 대한 회상 즉, 홍콩이 아닌 인도네시아 또는 베이징에서의 기억에 대한 과편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면 의식적 경계인으로 바뀐 후의 작가의 홍콩에 대한 의미는 자신이 살아왔던 홍콩의 역사와 장소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글은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져버린 홍콩의 카이탁 공항에 대한 작가의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홍콩의 봄날 오후 햇살이 카이탁 공항의 계류장 풀밭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공항버스의 차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나는 그렇게 홍콩으로 돌아왔다. 입국장에서 줄을 서서 세관을 통과하면서 나는 일종의 혼란스러움마저 느꼈다.<sup>12)</sup>

(…중략…)

베이징의 수도공항은 지금도 여전한데 카이탁 공항은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다.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중략…) 근자에 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의 모습들이 하나씩 들쭉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그저 기억들만이 뇌리 속에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할 뿐. (…중략…) 하지만 장차 카이탁 공항을 본 적이 없는 세대, 역사책의 사진 속에서나 자취를 찾아보면서 그 면모를 알 것이니, 그런 무심한 심정을 어찌 우리처럼 카이탁과 애환을 같이한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중략…) 그래서인지 1998년 7월 5일, 때마침 일요일인 카이탁 공항의 마지막 날,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sup>13)</sup>

12) 스티에성 외 39인, 김혜준 옮김, 『쿤룬산에 달이 높거든』 (좋은책만들기, 2002), 213. “我仍記得，香港春天下午的陽光正好，艷艷地洒在啓德機場的停机坪上，機場巴士的車門開了關上又重開，我就這樣回到香港么？在入境大廳里排對等候過海關，便有一種恍惚的感覺。”

13) 김혜준 옮김, 『쿤룬산에 달이 높거든』, 214. “眼看首都機場依在，而啓德機場却化入了歷史，不禁慨嘆永恒難求。(중략) 今年來，一个个我們熟悉的都市景觀悄然落幕，只有那記憶在腦海里閃過，(중략) 將來從未見過啓德機場的一代人，只能從歷史圖片中尋找它的踪跡，辨認它的面貌了，那種超然的心情，怎么能够与心曾和啓德共跳的當事者相比？(중략) 難怪在1998年7月5日有碰上星期天，這啓德機場運作的最后一日，人們一早便蜂擁而去。”

위의 산문은 타오란이 처음 홍콩에 왔을 때, 물리적 경계인으로서 홍콩의 카이탁 공항에서 느낀 심정과 그 후 카이탁 공항이 사라지던 날, 이미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화의 과정을 거쳐 장소성을 가지게 된 홍콩의 옛 공항에 대한 의미가 작가에게 새롭게 와 닿은 부분에 대한 감상을 적은 글로 볼 수 있다. 타오란은 자신의 삶과 함께 발전해나간 홍콩의 도시개발 과정과 개인적인 추억이 서린 기억의 장소들이 사라지고 변모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작품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다. 타오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머물게 된 홍콩이었지만 점차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서의 홍콩을 가슴 속에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

가버린 것은 붙들 수 없고, 다가오는 것은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만 그렇지 내 마음은 여전히 카이탁 공항에 못박혀 있다.

(…중략…)

공항 외에도 나로 하여금 자꾸만 되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다. 백라이퐁, 레이모우토투, 라이원 … 심지어는 윈도 극장까지. 오랜 세월 그것들은 이미 홍콩 사람들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 일종의 대명사가 되었다.<sup>14)</sup>

타오란은 1973년 중국을 떠나 홍콩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창작 활동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홍콩에서 그의 처녀작인 단편소설 『겨울밤 冬夜』(1974)를 발표하게 된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단편소설과 미니 소설집인 『회전무대 旋轉舞臺』, 『크리스마스 이브 平安夜』, 『밀월 密月』, 『오해 表錯情』, 『미인 紅顏』 등이 있고, 비교적 반향을 일으킨 중·장편 소설 『추적 追尋』, 『설레임 心潮』, 『양팔 저울 天平』, 『인간 人間』, 『하늘 끝에서의 만남 相逢在天涯』, 『너와 동행』

14) 김혜준 옮김, 『쿤문산에 달이 높거든』, 216. “去者已矣, 來者猶可追. 話雖如此說, 我的情意結依然系在啓德機場. (…중략…) 機場之外, 令我們回望再三的, 還有碧麗宮, 利舞台, 荔園甚至都電影院 …… 多少年來, 它們早已融入香港人的生活當中, 成爲某种代名詞.”

与你同行』, 『같은 하늘 一樣的天空』, 『먼 하늘가 노랫소리에 묻어있는 눈물 天外歌聲哼出的泪滴』 등이 있다.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홍콩과 중국 그리고 화인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연구된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 이에 3장에서는 산문에 이어 타오란의 소설 『양팔 저울』에서 작가가 느끼는 홍콩의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한다.<sup>15)</sup>

### 3. 『양팔 저울』에 나타난 홍콩의 장소와 역사적 의미

홍콩 문학계에서 타오란은 남래작가로 분류된다. 이들 남래작가는 중국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작가들의 시기와 그 원인에 따라 다시 세 시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40~50년대 홍콩으로 이주한 사람들로 중국의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남하한 난민작가나 좌익작가들로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작가로서 이미 명성을 떨친 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작가들의 작품 내용은 사회주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홍콩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60~7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그 외 다른 정치적 요인으로 홍콩으로 쫓겨 온 작가들로 타오란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들 남래작가들은 홍콩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작품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 한 이후 여러 가지 개인적 원인으로 홍콩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이들을 신이민자로 부르고 있다.<sup>16)</sup>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홍콩으로 이주한 물리적 경계인 신분으로서의 타오란은 홍콩 문단에서 남래작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긴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정착하게 된 공

15) 타오란, 송주란 옮김, 『양팔 저울』 (지만지, 2014)

16) 計紅芳, 『香港南來作家懷鄉母体的三重奏』, 『文學研究』 第六期 (香港, 2007), 24~33.

간 즉, 장소로서의 홍콩을 의미 있게 인식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다. 이-푸 투안은 경험적으로 공간의 의미는 종종 장소의 의미와 융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간은 장소보다 추상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무차별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sup>17)</sup> 타오란이 처음 홍콩에 도착했을 때, 홍콩은 그에게 있어 이-푸 투안이 말하는 공간에 불과했다. 앞에서 살펴 본 산문에서도 작가는 홍콩에 처음 도착했을 때, 세관을 통과하면서 일종의 혼란스러움마저 느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당시의 타오란에게 홍콩은 공간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이 한 개인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그 개인에게 그 공간은 장소가 되는 것이다. 타오란의 작품 속에는 이처럼 홍콩이 공간에서 장소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술이나 묘사들 즉, 의식적 경계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가의 내심에 대한 서술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타오란은 세 개의 지역 즉, 출생지인 인도네시아, 자신의 문학적 기반이 형성된 중국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홍콩을 서로 넘나들면서 정신적 소통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 반둥,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은 그리움의 공간이자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상대적으로 상업화되고 변화한 홍콩은 바쁜 도시의 생활 리듬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공간이긴 하지만 작가가 홍콩을 떠나 있을 때 늘 그리워지는 장소이고 또 늘 돌아가야 할 곳으로 인식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타오란의 작품 속 배경으로 가장 많이 묘사되고 서술되는 곳이 또한 홍콩이고, 타오란이 가장 많이 서술하는 주제 역시 도시 홍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로, 이민, 상업주의, 그리고 애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설 『양팔 저울』에서 다루고 있는 세 편의 중편소설은 모두

17) 이-푸-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19.

사랑이야기이다. 하지만 내용이 각기 다른 세 편의 애정소설 속에는 이면과 상업주의 그리고 사랑의 내용 모두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홍콩 청춘남녀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홍콩 사회의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며 작가가 홍콩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묘사해내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팔 저울』은 세 편의 중편소설 『미로를 빠져나오며』(1996), 『먼 하늘이 노랫소리에 묻어 있는 눈물』(1995), 『양팔 저울』(1984)로 구성되어 있다. 세 편 모두 1980~90년대 도시 홍콩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하나의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형성된 특수한 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 도시의 공간 속에 그 도시만의 특수한 잠재적 의미가 있으며, 도시 곳곳의 사물에 그러한 의미의 흔적이 산재하기 때문이다. 메를리-폰티에 따르면, 도시 그 자체 즉, 실체로서의 도시는 없다고 주장한다. 존재하고 보이는 것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들, 특수한 체험들, 특수한 삶의 의미이며 바로 이 특수한 의미의 흔적들이 도시 공간의 양식을 결정 짓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는 다양한 기념물과 표식들, 구역들, 그리고 다양한 생활방식들 등에서 그 자신의 고유한 양식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흔적들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이기에 하나의 도시 공간은 사회적·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 공간들이 서로 중첩되어 구성되어 지는 것이다.<sup>18)</sup>

『미로를 빠져나오며』는 지유생틴과 박렝잉의 사랑이야기이다. 박렝잉은 지유생틴이 근무하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고 지유생틴의 조수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서로는 이내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늘 분별없이 일만 시키는 사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박렝잉은 만약에 자신이 사장이 된다면 절대로 지금 사장처럼 사원들과 정서적 교류가 되지 않고 일만 시키며 이윤만 따지는 그런 사장은 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곤

18) 서도식, 『도시 공간의 현상학과 아고라포비아』, 『철학논총』 58-4 (새한철학회, 2009), 233.



한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사장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다. 그리고 새로 사장이 부임하게 되는데, 그 사장이 바로 박렙엥이다. 박렙엥의 전 남편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지유생틴은 충격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둘 사이의 사랑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렙엥의 태도는 연인에서 상사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고 지유생틴의 근무 태도나 성과에 대해 차갑게 비난하고 비평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둘 사이는 내심 갈등을 느끼며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 지유생틴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박렙엥의 사랑도 배금주의가 만연한 도시에서는 당연히 돈과 권력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사표를 쓰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는 정든 회사를 등지며 홀로 쓸쓸히 건물을 빠져 나온다. 하지만 무엇에 대한 미련인지 지유생틴은 고개를 돌려 회사 건물을 바라본다. 어쩌면 그에게 그 건물은 이미 하나의 특수한 장소로 의미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유생틴은 사장이 되면서 변심해가는 박렙엥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괴로워하지만 그녀와 함께 했던 장소에 대해 기억하고 회상하며 자신에게 특수한 체험과 삶의 의미를 준 홍콩의 장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자신의 개인사와 홍콩의 역사적 흔적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어두운 그림자가 늘 내 마음에 드리워져 있었어. 그 해 설날 그 끔찍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비극의 원혼이 아직도 이곳(란짜이퐁)을 배회하며 저 세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오싹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닐까?

그걸 알면서도 당신(주궈홍)은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가 말했다. 당신도 참.

기억이 여전히 새로웠다. 사실 그는(지유생틴) 렙엥과 함께 있을 수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았다. (...중략...) 렙엥은 변화한 곳을 좋아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란짜이퐁에 가요.(66)<sup>19)</sup>

그는(지유생틴) 주경홍에게 말했다. 혹시 당신이 란짜이퐁 일대를 생각할 때, 음울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퀴리베이로 한번 가보는 건 어때? 거긴 사람이 사람을 짓밟은 그런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주경홍은 머리를 치켜들며 술에 취한 몽롱한 눈빛으로 그(지유생틴)를 쳐다 보았다. 내게 그런 말 마. 퀴리베이는 신흥 비즈니스 지역이고 이제 타이쿠가 새로운 란짜이퐁이지. 하지만 그곳은 공업 지역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라 결코 계획이 잘된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 란짜이퐁처럼 그렇게 유럽화되고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곳이 또 어디 있겠어?(68)<sup>20)</sup>

위에 글에 나오는 주경홍은 지유생틴의 예전 동료이다. 하지만 그는 박 령영의 경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과감히 사표를 내던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 그는 한 때 동료였던 지유생틴이 걱정되어 이직을 독려하기 위해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홍콩의 란짜이퐁은 원래 술집이 많은 유흥가이다. 크리스마스나 연말, 또 10월 거리 축제 때는 누구나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데, 1992년 1월 1일에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2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던 지역이다. 홍콩의 유명한 작가 룡핑관은 『란짜이퐁의 슬픔』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란짜이퐁은 모든 게 혼합된 혼종의 공간이고, 카니발 축제 같은 혼잡스럽고 위험한 공간이며, 재앙이 멀지 않은 천당 같은 곳이다.”<sup>21)</sup> 혼합된 혼종의 공간이란 홍콩을 두고 한 말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 보인다. 그리고 란짜이퐁은 위에서 묘사한 것처럼 쾌락이 난무하고 무질서가 판치는 시끌벅적한 곳이

---

19) “我心里老是有个阴影，會不會是那年元旦大悲劇的冤魂還在這里徘徊不去，以至鬼气森森？那你又喜歡來這里泡？他說，你這個人呀（…중략…）心里却記憶猶新。其實他只要和玲莹呆在一起就可以，最好便是躲在沒有人群的地方，但玲莹喜歡熱鬧，她說，去蘭桂坊吧。”

20) “朱勁航抬起來，醉眼朦朧地望着他，你不要告訴我賊魚涌是新興商業區，太古坊就是新的蘭桂坊，那好歹是由工業區改建而成的，並沒有好好規劃。那里有蘭桂坊這麼的歐洲化這麼的令人敵意？”

21) 이지상, 『도시탐독』(알에이치코리아, 2013), 129.

다. 그리고 작가가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끔직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1992년 새해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록 허구인 소설이지만 타오란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홍콩의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란콰이퐁뿐만 아니라 퀴리베이에 대한 서술과 묘사도 상당 분량 차지하고 있다.

지금 퀴리 베이는 예전과 달라. 주경홍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내일은 더 좋아질거야. 당신이 잘 지켜봐.

사실 그는 그 말의 진정한 함의를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변화의 바람은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그가 어렸을 때 종종 다녔던, 삼촌이 일하던 그 공장 건물마저도 이미 뿌리째 뽑혀 버렸다. 그 건물을 대신해 세워진 것은 비즈니스 빌딩이었다.

(…중략…)

그가 소년이던 시절, 퀴리 베이는 그에게 가장 큰 세상이었다. 그는 심지어 끈통이나 뽕꼭을 한 번 다녀오는 것도 아주 멀고 고생스러운 여정이었노라고 령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지하철은 아예 없었고 여전히 신기한 해저터널 버스만 있었다. 그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트롤리버스를 가장 많이 탔다. 바람이 잘 통하는 위층에 앉아서 동쪽으로는 싸우께이완까지, 서쪽으로는 노스 포인트까지 다녔다. (…중략…) 영화 한 편 보러 가고 싶었지만 퀴리 베이에는 영화관이 없었다. 싸우께이완의 왕와 영화관에서는 『귀마쌍성』이 개봉되었다.

(…중략…)

퀴리 베이의 영화관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 당시 그와 그녀가 자주 갔던 시티 플라자의 까닌 영화관과 까와 영화관은 오늘날 이미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은 형이빠로우우이 영화관만이 남아있었다. (…중략…) 이미 상전벽해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그가 어린 소년 시절의 퀴리 베이를 충분히 묘사할 수 있을까? 그 당시, 람퐁싼천 일대는 산골짜기였고 보우평원을 따라 내려가면 산림이 펼쳐졌다. (…중략…)

1980년대 초기의 퀴리 베이는 이미 멀리 사라져 버렸다.(70~73)22)

소설 속 퀴리 베이는 타오란이 실제로 생활해온 곳이다. 지금도 퀴리 베이에 타오란의 사무실이 있다. 그만큼 타오란에게 홍콩의 퀴리 베이는 익숙한 공간이자 체험된 공간이며 그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소설에서 묘사된 퀴리 베이 역시 허구의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으로서의 장소이다. 그리고 당시의 그곳 지리적 관계망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 뽕쪽은 비즈니스가 왕성하고 생활리듬이 빠른 지역이다. 지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뽕이라는 식물이 많아서 붙여진 설도 있고, 원래 어촌이었는데 간척사업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번성하자 뽕쪽으로 바뀌었다는 설도 있다. 이 외에도 유래가 모호한 홍콩의 지명은 상당수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가는 퀴리 베이 근처에 있던 타이쿠 연못에 대한 변화, 마운트 파커 로드만, 안소이 거리, 타이쿠 비즈니스 지역 등등 수없이 많은 홍콩의 지명과 지역을 언급하며 과거 홍콩의 역사와 개인사를 동시에 반추하고 있다. 홍콩에서 타오란은 이미 물리적 경계인에서 의식적 경계인 속으로 들어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타오란의 소설에는 공간, 즉 장소로서의 홍콩이 자신의 기억이나 욕망 또는 기호로서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먼 하늘가 노랫소리에 묻어 있는 눈물」은 시적인 이미지로 어렴풋하

---

22) “但是賊魚涌今時不同住日，朱勁航說，我看明天會更好，你就好好守着吧！他摸不諳這番話的真正含義，但那種變化，却可以感覺到，連他小時常去的舅舅工作的那座工厂大廈也已連根拔起，代之而起的是一座商業大廈。(…중략…)他少年時的世界，就只有賊魚涌那麼大。他對玲瑩也說過，甚至去一躺觀塘或者旺角，也已經是長途跋涉了。沒有地鐵，只有仍然新鮮的海底隧道巴士。他最多也就是乘着叮叮當當的電車，坐在上層通風的座位上，東行至筲箕灣，西行到北角。(…중략…)想去看一場電影，但賊魚涌沒有電影院，《鬼馬雙星》在筲箕灣的永華電影院公映。(…중략…)但是即使是賊魚涌的電影院也不是一成不變，那個時候他跟她常去的太古城中心的嘉年電影院和嘉華電影院，如今也已經烟消雲散，只有康怡百老匯電影院依在，(…중략…)滄海桑田，他能夠怎樣去描述他少年時代的賊魚涌？那個時候，南丰新村一帶是個山谷，沿着寶峰園下去，是一片山林。(…중략…)八十年代初期的賊魚涌，已經遠去。”

고 모호한 한 남자의 애정이 허구로 구성된 가상 세계와 현실을 중횡 무진하는 사랑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시공을 초월하여 내면을 묘사하는 의식의 흐름방식으로 서술되어있다. 그리고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의 혼재와 교차를 통해 환상과 현실이 종종 만나기도 한다. 잡지사 촬영기자인 시우왕생은 우연한 기회에 변화한 거리에서 젊은 미모의 화가 윤유메이를 만나게 된다. 윤유메이는 미국에 남편과 딸도 있었지만 시우왕생과 사랑을 하게 된다. 하지만 1997년이 다가오기 전에 윤유메이는 시우왕생을 쳐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린다. 그 사이 시우왕생도 평범한 여자인 이감과 결혼을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엔 윤유메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시우왕생은 출장을 위해 공항을 가게 되고, 공교롭게도 6시간 동안 비행기가 연착하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공항에 갇힌 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환상과 자신이 설정한 가상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기억들이 이 소설의 줄거리이다. 이 소설에서도 주인공은 특정한 자신의 과거 사건과 관련된 지역을 기억의 매개체로 설정하여 그 지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윤유메이는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꽃다발을 황급히 그녀에게 건네줘 버렸다. “꽃다발은 미인에게나 어울리지. 나 같은 남자가 꽃다발을 안고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어쩐지 좀…”

“그게 어때서요? 오히려 남자들이 더 좋아할걸요!”

“난 아니야.” 그의 시선은 밤거리의 차량 행렬로 이동했다. 네온사인 등불 아래서, 저 멀리서 흘러 들어오는 것은 노란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고, 저 멀리 밀려가는 것은 빨간색의 브레이크 등 불빛이었다. 째짜꼬이의 야경은 그의 기억 속에 그렇게 그려졌다.(184~185)<sup>23)</sup>

23) “袁如媚笑着摇摇头。他却連忙把那束花她身上一送,“鮮花配美人,我一个大男人,抱着鮮花滿街跑……”“那有什么?男人更高興!”“不是我”他的眼睛投向那夜街上的車水馬龍,霓虹灯下,流過來的是黃色車頭灯,流過去的是紅色的車尾灯。這尖沙咀的夜景,就這

위의 인용문은 소설 속 시우왕생이 기억하는 찜사쫘이의 야경에 대한 기억이다. 찜사쫘이는 홍콩 구룡반도의 중심지역이다. 먼 옛날 몽골족이 중국 대륙을 침입했을 때 홍콩으로 피신한 송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반도 지역에 솟아오른 여덟 언덕을 보고 “여덟 마리 용 같구나”라고 말하자, 한 신하가 “아닙니다. 아홉 마리 용입니다. 황제 폐하께서 아홉 번째 용입니다”라고 아첨한 데서 구룡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찜사쫘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네이던 로드는 1900년대 초 13대 총독 네이던이 조성한 거리로, 차와 인파로 붐비고 특급 호텔과 쇼핑몰이 즐비한 홍콩에서 손꼽히는 변화가 중한 곳이다.<sup>24)</sup> 현존하는 이 찜사쫘이가 소설 속에서는 차량이 밀려가고 밀려오는 야경의 모습으로 기억된 곳이며 발렌타인데이 때, 처음으로 연인인 유메이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거리를 나와 테이트를 즐기던 곳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불찰로 유메이와 다투었던 슬픈 발렌타인 데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이처럼 특정한 장소는 삶의 다양한 흔적들이 누적되어 있는 장소이며 시공간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의 장소이기도 하다.<sup>25)</sup> 이렇게 타오란은 홍콩에서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장소를 중심으로 하나씩 누적시켜 가고 있었다.

지하는 그를 이 도시에 내버려 놓고 가버렸다. 이 도시는 매우 한적하고 유유 자적했다. 언제나 그칠 새 없이 차가 오고 가고, 사람들이 넘쳐 나서 늘 그를 초조하게 했던 홍콩과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갑자기 홍콩이 그리워졌다. 어찌 되었건 홍콩은 그의 삶의 터전이었다. 곳은 바쁘게 오고 가는 나그네가 한 사람도 없는 이곳과는 달랐다.

내 뺏속 깊숙이 있는 그 어떤 것이 아직도 그 변화하고 시끌벅적한 생활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p.239)<sup>26)</sup>

---

樣流進他記憶的屏幕里。”

24) 이지상, 『도시탐독』, 27.

25) 류지석, 『로컬리티와 인문학』, 354.

린씨 가족들은 많은 홍콩인과 마찬가지로 이민을 간 후 이민 신고를 마치고 서도 다시 홍콩으로 되돌아왔다.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엔 이곳이야말로 신선이 사는 곳이었다. 그리고 97이 다가오기 전까지 아직 시간을 벌여 볼 수 있었다.(262)<sup>27)</sup>

그도 홍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중략…) “나? 나야 홍콩파잖아. 50년 동안 변한 적 없어!”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같이 이렇게 태연한 사람은 지금껏 본 적이 없었어.”

그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완전 허세는 아니었다. 반평생을 이미 파란만장하게 보낸 그로서는 더 이상 홍콩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263)<sup>28)</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홍콩에 대한 주인공의 그리움과 애착을 잘 느낄 수 있다. 도시 공간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의 기억과 사건들의 복합체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록 타오란은 물리적 경계인으로서 홍콩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수년간 홍콩에서 축적된 삶의 기억과 사건들은 더 이상 그를 홍콩에서 이방인으로 만 머물게 하지는 않았다. 홍콩을 떠나 다른 도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오히려 그는 자신이 이방인으로 인식되었고 홍콩의 의미가 더 크게 자신에게 다가왔다. 또 ‘97’이라는 숫자는 타오란의 소설뿐만 아니라 홍콩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숫자이다. 홍콩인이라면 이 숫자가 가지는 의

---

26) “紫霞把他扔給了這個城市。這城市十分安靜悠閑，不像香港，任何時候都是車水馬龍，人頭涌涌，常常令他十分煩躁。可是這時候他竟怀念起香港來了，不論怎樣，香港是他生活的地方，不像在這裡只是一個一無所有的匆匆過客。莫非，在骨子裡，我還是喜歡那熱鬧的生活？”

27) “他明明知道林先生一家就像許多香港人一樣，移了民報到了又再跑回香港，畢竟這里是一塊福地，至少在九七來到之前，還可以撈一段時間。”

28) “他只是懷着不變的愿望，有些無奈地留下來罷了。“我嘛，我是留港派。五十年不變嘛！”人人搖頭，“沒見過像你這樣沉着的……”他只是擺出一副莫測高深的模樣。也不完全是裝模作樣，已經顛簸了半生，他不想再離開香港了。”

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97'은 홍콩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숫자이며 자신들이 삶의 흔적과 터전에 대한 유통기한으로서의 마감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하다. 모두가 홍콩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야단법석일 때조차도 소설 속 주인공은 홍콩에 남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타오란 자신의 말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타오란은 이제 처음 홍콩에 왔을 때와는 달리 홍콩에 대한 의미가 특정한 장소들로 인해 점차 그리움의 대상이자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소설 『양팔 저울』 역시 97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홍콩 젊은이들의 사랑이야기에 97은 빠질 수 없는 숫자였고, 그들 스스로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홍콩에 대한 마감 기한으로 생각했다. 진실한 사랑보다도 1997년이 되기 전에 이민을 갈 수 있는 누군가와 만나 결혼하는 게 홍콩 여성들의 첫 번째 목표이기도 했다. 돈이 없어 이민을 갈 수 없는 남자들은 순수한 사랑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여인을 돈 많은 남자에게 당연히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상황을 여자든 남자든 누구나 다 마음 한편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홍콩 남녀의 애정관으로 형성되어 나타난다. 이 소설은 이러한 남녀 사이의 미묘한 심리전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그리고 홍콩의 과거사를 반추할 수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 녹아있다.

반드시 시청해야 한다면 뉴스만 봤다. 오늘 저녁에 방영한 <투시>는 정말로 불만한 가치가 있었다. 가우룽청자이의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년 전에 친구를 따라 그 일대를 둘러본 적이 있었다. 통로는 마치 암흑천지의 갭도 같아서 때로는 허리를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낮았던 것만 기억났다. 누군가는 그곳이 통치계급층의 욕욕을 만족시켰던 곳이었다고 말했지만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292)<sup>29)</sup>

29) “要看的話，也只看新聞。今天晚上的『透視』節目，好象還真有些看頭，原來九龍誠碧的情況是這樣的。記得好几年以前，我隨朋友去那邊轉了一圈，只覺得通到如不見天日的抗



가우룽청자이는 소설 속 주인공 웬족엥이 살고 있던 지역이다. 단순히 소설 속 배경으로 등장한 곳이지만 사실 이 곳은 아주 특별한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곳이며 홍콩의 모호한 위치를 보여주는 역사적 현장이다. 영국이 신제 지역을 99년간 조차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곳이 이곳 가우룽청자이었다. 이곳은 송나라 때부터 소금 무역을 관장하는 관리와 병사들이 주둔해온 곳이었기에 중국 정부는 내주기를 꺼려하였다. 결국 영국은 이곳을 중국의 관할권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신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고 가우룽청자이에 주둔하던 청나라 군인과 세관원들을 추방해버린다. 여기서 충돌이 생겨 주민들은 항영 투쟁을 했지만 영국은 가우룽청자이를 무력으로 점령해 버렸다. 또 일본 점령기인 1942년 카이탁 공항 활주로를 만드는데 이 성을 해체하여 쓰기도 했다. 그 뒤 영국정부가 1948년 이곳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자 성난 주민들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영국과 중국 정부가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곳은 무법천지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중국과 영국 양쪽 정부에 방치된 가우룽청자이는 점점 마약상과 창녀와 범죄자들이 모여드는 슬럼가로 변해갔다. 이후 이곳은 중세 분위기의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비위생적인 주거지였다고 전해진다. 그 뒤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영국 정부는 1993년 이곳을 완전히 허물고 1995년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역사적인 흔적을 가진 장소를 타오란은 소설 속 배경으로 제시하고 그것에 관한 정보를 흘려주고 있다. 그의 소설은 소설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홍콩의 특정한 장소에 대한 의미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즉, 타오란은 보이는 도시를 보여주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도시를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삶의 편린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정체는 의미의 공간, 곧 ‘보이지 않는’ 공간이며, 그러면서도 그것은 사물의 공간, 곧 ‘보이는’ 공간의 발생 및 타당성

---

道似的, 有時矮到要彎腰才能前進, 有人說那里是聲色犬馬的世界, 但實際情況怎樣, 我一点也不清楚。”

의 토대인 것이다. 즉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보이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게 되는 것이다.<sup>30)</sup> 타오란의 소설에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보이는 홍콩이 아닌 자신이 체험하고 삶이 축적된 보이지 않는 홍콩을 통해 자신만의 홍콩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 4. 나오며-기억된 장소로서의 홍콩

식민지 이전의 홍콩은 개방공간에 지나지 않았다. 개방공간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생긴 길이나 표지판이 없다. 개방공간에는 기존의 인간적인 의미들이 고착되어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개방공간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백지와 같다. 구획되고 인간화된 공간은 장소이다. 공간에 비해 장소는 기존 가치들의 중심이다. 인간은 공간과 장소를 필요로 한다. 인간의 삶은 보금자리와 모험, 애착과 자유 사이의 변증법적인 운동이다. 개방공간에서는 장소를 강렬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 고립되어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광대한 공간은 동경의 대상이 된다.<sup>31)</sup> 홍콩이 개방공간에서 장소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타오란은 경계인으로서 홍콩에 정지 또는 멈춤의 주체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간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방성, 자유, 위협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장소는 안정, 안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정지 또는 멈춤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이-푸 투안의 말에 근거하여 타오란과 홍콩의 관계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타오란에게 홍콩은 자신이 삶이 영위되는 장소이자 언젠가는 돌아와야 할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안정된 장소 너머에 있는 광대한 공간 즉, 타오란에게 있어서

30) 서도식, 『도시 공간의 현상학과 아고라포비아』, 228.

31)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94.

의 인도네시아나 베이징은 동경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매를리-퐁티는 공간 경험의 주체를 몸으로 인식했고, 우리는 몸을 통해 세계에 닿을 내리고 있으며 몸은 우리가 세계와 교섭하는 매체라 하였다.<sup>32)</sup>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타오란은 개방공간인 홍콩에 주체로서의 몸이 들어와 자신의 몸이 체험되고 삶이 영위되는 공간으로서의 홍콩을 의미화하고 이를 자신의 장소로 만들어 낸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기억하는 홍콩은 홍콩의 역사이자 자신의 추억과 삶의 편린들이 축적된 또 하나의 기억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32) 서도식, 『도시 공간의 현상학과 아고라포비아』, 232.

## Ⅰ 참고문헌 Ⅰ

- 류지석, 「로컬리티와 인문학」, 『대동철학』 53 (대동철학회, 2010).
- 문성원, 「주변의 의미와 잠재성」, 『시대와 철학』 18-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 박경태, 「다문화사회 연구」, 『화교에서 화인으로 - 식민시기와 냉전시기 인도네시아의 화인정 책』 (숙명여자대학교, 2009).
- 서도식, 「도시 공간의 현상학과 아고라포비아」, 『철학논총』 58-4 (새한철학회, 2009).
- 스티에성 의 39인, 김혜준 옮김, 『쿤룬산에 달이 높거든』 (좋은책만들기, 2002).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앤다룻, G. B., 은은기 옮김, 『홍콩의 역사』 (한국학술정보, 2006).
- 예스 지음, 김혜준 · 송주란 옮김,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 (지만지, 2012).
- 이지상, 『도시탐독』 (알에이치코리아, 2013).
- 아-푸 투안, 구동회 ·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 타오란 지음, 송주란 옮김, 『양팔저울』 (지만지, 2014).
- 하용삼 · 배윤기, 「경계의 불일치와 사이 공간에서 사유하기-G.아감벤의 국민 · 인민 · 난민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62 (대동철학회, 2013).
- 計紅芳, 「香港南來作家懷鄉母体的三重奏」, 『文學研究』 第六期 (香港, 2007).
- 胡 茄, 「狩獵于都市風景-陶然筆下的香港」, 『香港文壇』 總第九期 (香港文學報社出版社, 2002).

## The Place of Hong Kong Represented in Tao-Ran(陶然) Novel

Focused on 『*A Scale*(天平)』

Song, Ju-Ran(Pusan National University)  
heeya5280@hanmail.net

Hong Kong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ities that changed from a meaningless place to a meaningful one through citizen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Britain. While it could not form a single community before colonization, Hong Kong gradually developed into a single, distinct community as immigrants from China as well as from the West, including Britain, came into the city. Through this process, Hong Kong transformed into a unique place with local impacts, characterized by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the society that are relatively heterogeneous compared to China. Such characteristics of Hong Kong can be found in Hong Kong literature as well. Hong Kong writer, Tao-Ran, is especially characteristic of writing his prose and novels about the local significance of Hong Kong through the reminiscence and recollection of his past.

Tao-Ran came from China, who is classified as a migrant writer in the Hong Kong literature. This reveals Tao-Ran's multiple positional identity and physical marginality. He was forced to live in Hong Kong by external pressure. Thus, for Tao-Ran, Hong Kong was merely a place for his temporary stay. However, he gradually imparted meaning to Hong Kong as a distinct place, and he shows this development of sense of space through his writings. Now, for Tao-Ran, Hong Kong is perceived as a space in which he goes about his daily life and to which he must go back some day. Furthermore, Tao-Ran starts to have a yearning for Indonesia and Beijing that are located in the vast space beyond the stable city, Hong Kong. This study attempted to specifically shed light on this phenomenon through Tao-Ran's prose and novels and to consider the local meaning of Hong Kong that

Tao-Ran experienced.

Key Words : Hong Kong, Tao-Ran, Hong Kong literature, Space, Place

투고접수: 2015.1.7  
심사완료: 2015.2.21  
게재결정: 2015.2.22